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영장

광주지검, 관급공사 발주 4000만원 받은 혐의

검찰이 관급 공사 발주와 관련해 건설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갑길(52) 전 광주시 광산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는 최근 공사 수주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전 청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지난 11일 자진출석한 전 전 청장을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 조사결과 전 전 청장은 광산구청장 재임 중인 지난 2009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무실에서 관급 공사 수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대표 정모(52)씨로부터 2000만원씩 받은 혐의다.

검찰은 전 전 청장이 수표와 현금 등으로 한 번은 직접 받고 또 한 번은 제3자를 통해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추가로 수사선상에 오른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전 전 청장에게 뇌물을 주고 광주 모 대학에 돈을 줘 자신의 여동생의 취직을 청탁한 정씨를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했다. 정씨는 자신의 여동생을 취직시키는 대가로 대학 측에 수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전 전 청장은 광주시의원, 16대 국회의원, 광산구청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광주 광산갑에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최근에는 통합민주당의 한 대통령 경선 후보를 돕는 등 재기에 나서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학동창 등친 '보험왕'

"변액보험 부활 납입금 주겠다" 속여 보험 납부

피해자 3명 "3억원 사기 당했다" 고소장 내

보험왕까지 오른 보험설계사에게 수억원의 사기를 당했다는 대학동창 등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보험설계사는 제3자의 실효된 변액보험을 부활시켜 납입금과 두 배 이상의 해약 환급금을 주겠다고 이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액보험은 실효되었더라도 2년 이내에 밀린 보험금을 납입하면 되살릴 수 있다.

이모(여·45)·조모(여·43)·서모(여·32)씨 등 3명은 보험설계사 김모(여·44)씨에게 3억여원의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을 광주서부경찰에 접수했다.

농산물도매시장 상인인 이씨는 지난해 2월 당시 D보험회사에 다니던 김씨가 "월 500만원씩 납부하는 변액보험 6건을 인수해 부활시키면 7억여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속였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그는 김씨를 믿고 모두 4억7000만원을 보험사에 납부했다. 하지만 이씨는 약속한 해약 환급금 가운데 5억5000여원만을 수령했다. 나머지 1억6000여만원은 김씨가 가로챘다는 것이다.

조씨도 같은 수법으로 속아 5000만원을 납부했지만, 김씨에게 "원래 보험가입자가 전체 금액을 수령해 가버려 한푼도 찾을 수 없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들 피해자들은 신용불량자인 김씨의 말에 속아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 하지만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피해를 더 입었다. 또 "할부금을 제때 내겠다"는 김씨의 말에 휘둘려 외제차를 사줬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보고 되팔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해외체류 다문화원생 출석" 보조금 꿀꺽

전남지역 어린이집 원장 등 33명 입건

전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2일 다문화 가정 원생의 출석률을 허위로 높이는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목포 한 어린이집 원장 김모(여·43)씨 등 목포·여수·광양·나주 등 전남지역 어린이집 32곳 관계자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다문화 가정 아동이 해외에 출국해 체류하고 있는데도 어린이집에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1곳당 100만~400만원까지 모두 7000여만원의 보육료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매달 11일 이상 출석해야 보육료를 100% 받을 수 있는데도 출석률을 허위로 높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현석기자 chadol@

엑스포 관람객 첫 사망

무더위 속 80대 심장마비

후텁지근한 날씨 속에 80대 노인이 여수세계박람회를 관람하다 쓰러져 숨졌다.

엑스포 기간 중 관람객이 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오후 2시10분께 여수세계박람회장 행사장 국제관 C동 부근에서 김모(82)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운영요원이 발견, 119 구조헬기에 의해 광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김씨는 이날 전북 김제에서 산악회 회원 80명과 함께 박람회장을 찾았다. 이날 오전 6시께 버스를 타고 김제를 출발한 김씨는 3시간 뒤인 9시께 박람회장 도착, 5시간 가량 관람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박람회장 중앙의료소 관계자는 "김씨가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헬기를 출동시켜 20여분 만에 광주의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장시간 버스를 타고 박람회장에 온데다 무더운 날씨 때문에 체력이 소진돼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플랜트건설노조 前 위원장 등 11명 기소

조합비 선거 자금 제공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2일 조합비 일부를 정치 사업비 명목을 책정해 선거 후보자 등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전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 윤모씨 등 11명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0년 4월과 5월 사무처장 마모씨와 공모해 6·2지방선거에 출마한 허모씨 등 4명의 후보자에게 조합비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석부위원장 김모씨는 지난해 2~3월께 4·11총선에 출마한 윤모씨 등 3명의 후보자에게 조합비 500만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다. 플랜트건설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 지부장 김모씨는 사무국장 이모씨와 짜고 6·2지방선거에 출마한 허모씨 등 6명의 후보자에게 조합비 62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비 개자 전염병 예방 방역 장맛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12일 광주시 북구보건소 방역기동반원들이 오치1동 주택가와 상가주변 일대를 대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하계방역은 오는 10월 말까지 실시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임건우 보해양조 전 대표

檢, 소환 조사

보해저축은행 오문철(60 · 구속기소) 전 대표의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최근 보해양조 임건우(65 · 구속기소) 전 대표를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해저축은행과 관련해 임씨의 개인비리가 나와 확인차 몇 차례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해저축은행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임 전 대표가 회사자금을 유용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앞서 임 전 대표는 보해양조 명의로 어음을 양도하는 방식을 통해 회사에 370억원의 손해를 보게 하고 회사자금 7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檢, 목포수협 압수수색

인사 비리 정황 포착

검찰이 목포수협의 비리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2일 오전 전남 목포시 온금동 목포수협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와 장부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인사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정확을 포착, 조합장실과 상임이사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선관위 직원 폭행

60대 벌금 500만원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최근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나온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선모(60)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씨는 제19대 총선 민주통합당 당내 경선 투표일인 지난 3월14일 오후 1시40분께 영광군 영광읍 모 사거리에서 단속나온 선관위 직원 이모씨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만취 취객 출동 경찰 뺨 때려

쌍나팔

○…만취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뺨을 수차례 때린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1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6)씨는 전날 오후 6시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한 식당에서 영업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황모(47) 경위의 뺨을 5대 때리고, 발길질을 했다는 것.

○…술에 취해 40여분 동안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김씨는 현장에 도착한 황 경위가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다짜고짜로 폭행.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